손흥민 파트너, 황희찬이냐 김신욱이냐

월드컵 엔트리 중간점검…90% 확정

석현준은 사실상 최전방 주전자리서 밀려
MF 권창훈-기성용-정우영-이재성 유력
DF 김진수-김민재-최철순…한자리 미정

●2018 러시아월드컵 엔트리 경쟁구도




터키 안탈리아에서 2주간의 전지훈련을 마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미 대표팀 23명 엔트리 가운데 70%를 마음속으로 확정했던 신 감독은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그 범위를 90%로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 뉴시스

누가 낙점 받을까.

2018 러시아월드컵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4개월 남짓이다. 이 시점에 궁금한 건 누가 엔트리(23명)에 근접했느냐다. 터키 안탈리아에서 2주간의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5일 귀국한 신태용 감독의 머릿속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지난해 유럽 원정 및 국내 평가전, 그리고 E-1 챔피언십(구 동아시안컵)을 통해 대충의 옥석을 가렸고, 터키 전훈에서 더하기와 빼기를 했다. 신 감독은 "내가 볼 수 있는 선수는 거의 다 봤다. 3월은 최정예가 될 수도 있고, 80~90% 정도 완성이 돼 원정 평가전을 치를 것이다"고 밝혔다.

결국 3월 A매치에 출전할 명단이 발표되면 윤곽은 확실해진다.

생존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 선수가 누구인지 중간 중점을 해본다.

우선 공격진의 경우는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의 파트너 찾기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까지 황희찬(잘츠부르크)이 유력했던 게 사실이다. 파워가 넘치는데다 골 결정력도 겸비해 드리블과 순발력, 결정력을 두루 갖춘 손흥민과의 시너지가 기대됐다. 하지만 김신욱(전북)이 E-1 챔피언십부터 터키 전훈까지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는 등 반란을 일으켰다. 뛰어난 피지컬 덕분에 플랜A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옵션으로 자리잡았다.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이 어려운 석현준(트루아)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많이 밀린다.

미드필더도 얼추 구성됐다. 권창훈(디종)과 이재성(전북)이 급성장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좌우 날개로 낙점 받았다.

왼쪽에는 염기훈이나 이승기(전북), 지동원(다름슈타트) 등이 백업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 오른쪽은 조금 복잡하다.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이 중앙과 측면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이 임대 이적에 실패했다는 점 등이 변수다. 공격수로 분류되는 이근호도 오른쪽 윙으로 뛸 수 있다.

권창훈이나 이재성 모두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공격형 MF 역할을 한다는 점은 중앙 MF의 활용과도 연계된다. 즉, 중앙 MF는 수비에 방점을 찍으면서 허리를 두껍게 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이는 중원 싸움에 사활을 걸 신 감독의 승부수와도 맞물린다. 기성용(스완지시티)의 입성이 확실한 가운데 호흡을 맞출 파트너로는 정우영(빗셀고베)이 유력하다. 이명주, 주세종(이상 아산), 김성준(서울), 이창민(제주) 등의 엔트리 경쟁도 마지막까지 치열할 전망이다.

어느 포지션보다 조직력이 강조되는 중앙수비에는 김민재(전북)가 한자리를 꿰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대 이상의 안정된 플레이로 백업이 아닌 주전으로 곧바로 올라선 케이스다. 김민재를 중심에 놓고 호흡을 맞출 선수에 관심이 쏠리는데, 2년 연속 A매치 최다 출전의 장현수(FC도쿄)를 비롯해 권경원(톈진), 김영권(광저우), 정승현(사간도스), 윤영선(상주) 등이 후보군이다.

중국 무대에서 전북으로 임대된 홍정호도 K리그 활약여부에 따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좌우 풀백은 사실상 결정됐다. 왼쪽은 김진수(전북), 오른쪽은 최철순(전북)이 주전으로 나선다. 백업으로는 왼쪽에 김민우와 홍철(이상 상무), 오른쪽에 고요한(서울)이 거론된다.

골키퍼 포지션은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경험을 쌓은 김승규(빗셀 고베)와 지난해부터 두각을 나타낸 조현우(대구)의 주전경쟁이 치열하다.

한편 대표팀은 다음달 유럽 원정에 나서 북아일랜드(24일) 및 폴란드(28일)와 평가전을 갖는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

통신원 리포트

또다시 출전 불발 이청용 호지슨 왜 임대를 막았나


이청용

결국 이번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4일(한국시간) 런던 셀허스트 파크 스타디움에서 크리스털 팰리스-뉴캐슬 유나이티드의 2017~1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가 열렸다. 이청용은 교체명단에 포함 되었으나 출전하지 못했다. 두 팀은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적을 원하던 이청용은 겨울 이적시장 막판에 친정팀 볼튼으로 임대가 확정된 듯 했다. 모든 준비는 된 상태였다. 그러나 막판에 틀어졌다.

이청용의 매니지먼트 회사 인스포코리아는 1일 "크리스털 팰리스의 바카리 사코가 예상 못한 부상을 당하자 팀의 전력공백을 우려한 로이 호지슨 감독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이청용을 보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청용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 소동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취재진을 맞이한 이청용은 애써 태연한 모습이었다. "난 괜찮다. 인터뷰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다들 아시다시피 마지막까지 (볼튼행이) 성사 될 뻔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코)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구단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얘기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청용은 "내가 무슨 힘이 있겠나…우선 지나간 일은 빨리 잊고 오늘 경기에 임했고 준비했다. 오늘도 비록 뛰지는 못했지만 후반에는 팀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다음 일정이 에버턴 원정인데 좋은 결과가 다음 경기에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현재 심경을 털어놓았다.

이적불발 뒤 로이 호지슨 감독과 따로 나눈 대화의 내용을 묻자 "일단 구단과 감독님은 내게 사과를 하셨다. 1월 초에 내게 감독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다. 나도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였다. 지금으로써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집중할 생각이다"고 했다.

이어 "몸 상태는 좋은 편이다. 그러나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기에 어느 때보다 경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볼튼으로 가고 싶었다. 갔으면 내게도 좋은 기회가 됐을 뻔 했는데 운명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적불발에 따른 쓰라린 속내를 전했다.

마침 경기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나가던 로이 호지슨 감독은 이청용을 보자 환하게 웃고 한국 취재진에게도 반갑게 인사를 했다. 이청용에게도 악수를 권했다. 하지만 이청용이 영국 현지 취재진에게 건넨 첫 마디는 "나는 갈 준비가 되어있었다(I was ready to go)"였다.

이청용은 "개인적으로 아쉽고 실망이 컸다. 며칠간 정신이 없어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솔직한 심경도 전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크리스털 팰리스에 남아있어야 할 이청용에게 과연 출전기회는 올 수 있을지. 대표팀도 자신도 현지 취재진도 모두 걱정이 한 가득이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구자철, 리그 2호골…지동원 이적 후 첫 득점

〈아우크스부르크〉 〈다름슈타트〉

손흥민 골 침묵…토트넘, 리버풀 원정 2-2


구자철


지동원

독일에서 활약하는 태극전사들이 나란히 골맛을 봤다.

독일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구자철(29·아우크스부르크)은 5일(한국시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WWK 아레나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어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팀 사정상 측면과 중앙 미드필더를 오가는 구자철은 이날 공격 2선의 중앙을 책임졌다. 구자철은 전반 19분 세트피스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골을 넣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크로스한 볼을 수비수가 걷어냈고, 이를 잡은 아우크스부르크 선수가 중거리 슛을 시도했다. 볼은 수비수 맞고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 있던 구자철 앞으로 흘렀다. 구자철은 침착하게 볼을 잡아 수비수 1명을 따돌리고 오른발로 정확하게 슛, 상대의 골문을 열었다.

시즌 2호골을 성공시킨 구자철은 많은 활동량으로 미드필드에 힘을 보태며 경기 내내 좋은 활약을 펼쳤다.

겨울이적시장에서 분데스리가 2부 리그 다름슈타트로 이적한 지동원(27)도 득점포를 가동했다. 뒤스부르크와의 홈경기에서 섀도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팀이 0-1로 뒤진 전반 37분 동점골을 넣었다. 다름슈타트로 이적한 이후 2경기에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빠른 적응력을 자랑했다. 1월28일 상파울리전에서는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 하지만 다름슈타트는 1-2로 졌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손흥민(26)은 영국 안필드에서 벌어진 리버풀과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특유의 스피드를 앞세워 소속팀 토트넘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후반 45분 교체 아웃됐다. 토트넘과 리버풀은 2-2로 비겼다. 토트넘은 경기 종료 직전 얻은 페널티킥을 해리 케인이 성공시켜 패배를 면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줄줄이 우로 가!"…축구 대신 연병장 도는 상무

김병오 성추문 탓에 상무 이미지 큰 타격
개인운동시간 줄고 제식·정신교육 강화


상주 상무 소속선수 모두가 사력을 다했던 지난해 부산 아이파크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장면. 그날의 절박함을 괌 전지훈련에서 망각했던 상무 선수들은 이제 자신이 축구선수 이전에 군인 신분인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줄줄이 우로 가!" "뒤로 돌아 서!" "왜, 오와 열 맞추지 않나?"

요즘 K리그1(클래식) 상주 상무 선수들은 축구공 없이 연병장을 돈다. 한겨울 맹추위 속에서도 매일 일과시간을 쪼개 제식훈련을 반복해서 받는다.

다른 K리그1 팀들은 시즌 개막에 맞춰 본격적인 전술훈련에 들어갔지만 군 팀 상주 상무 전혀 다른 일정을 보내고 있다. 해외토픽에 나올법한 상황이다. 이는 "축구선수 이전에 군인임을 잊지 말라"는 국군체육부대장(상무) 부대장(준장 곽합)의 지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시즌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병오(29·상병)와 관련된 성추문 탓이다.

그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신고로 1월 22일(현지시간) 새벽 현지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보석금을 내고 구금 신분은 면했으나 여권이 압수돼 괌을 떠날 수 없는 몸이 됐다. 상주 상무 코치와 함께 현지에 머물고 있는 그는 2월 1일 괌 법원의 예비심리를 받았다. 판결은 부정적이었다. 배심원들이 '정식기소' 평결을 내려 결국 정식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선수는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괌 현지매체에 따르면 오히려 범죄 혐의가 3가지 추가됐다. 이 내용은 5일 부대장에게도 상세히 보고 됐다.

이 사고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은 상주 상무의 축구와 관련한 모든 스케줄은 올 스톱됐다. 국방부 감사관의 집중 조사를 받는 한편, 선수단은 틈날 때마다 그라운드가 아닌 회의실에 모여 정신교육을 받는다. 대적관과 안보관, 군인으로서 기본의무와 자세를 숙지하고 있다.

연병장에서의 제식훈련도 무한 반복이다. 다만 총은 없다. 상무는 전시를 대비한 보충병으로 분류돼 부대 내에 개인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사격과 총검술을 익히려면 인근 부대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오전·오후 하루 2차례 약 6시간이 훈련시간으로 마련됐으나 실질적으로 땀 흘리는 건 4~5시간이다. 남은 일과 3~4시간은 개인운동 및 정비(마사지 등)에 할애했으나 전부 제식훈련과 정신교육으로 프로그램이 바뀐 지금은 꿈도 꾸기 어렵다.

물론 축구팀에 한해서다. 매주 금요일마다 체육부대 내 각 종목 지도자들과 군 간부들이 참석해 진행하는 주간회의에서도 부대장은 다시 한 번 정신무장을 강조했다. 이번 사고가 해이한 기강에 있다고 보고, 선수 이전에 군인이라는 사실을 병사들에게 단단히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괌에 이어 부산 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려던 선수단 2차 전지훈련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전지훈련 이야기는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한다. 향후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는 얘기만 간접적으로 흘러나올 뿐이다.

한 축구인은 "시즌이 임박했는데 제대로 손발을 맞추지 못한다는 건 치명적이다. 성적을 포기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감수할 정도로 내부 상황이 심각했다는 반증"이라며 혀를 찼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 및 부대 차원의 자체 조사에 따른 추가 징계자도 나올 전망이다. 괌 현지에서 음주, 근무지(숙소) 무단이탈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동에 동참한 몇몇 선수들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상적인 팀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기본을 저버린 행위의 파장이 너무 크다. 상주 상무 선수단을 향한 세간의 시선도 따갑다. 군 복무 중에도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음에도 이를 권리로 알고 본분을 망각한 이들이기에 비판의 강도는 더 높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